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응답이 곧, 생명의 말씀이다.
2.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3. 말씀을 듣고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4. 기도와 말씀이란, 땅과 하늘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고로 기도는 땅의 우리들에게 속한 일이고,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속한 일이다.
5.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보낸 메시아를 통해 육신이 되어 왔다. 메시아는 말씀의 실존체다.
6.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다.
7.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성령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그 면에서 신이다.
8. 어둠은 빛을 비취도 깨닫지 못한다. 사람은 어둠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빛이시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둠이니라.
9. 유대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가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

했다. 고로 어둠이었다. 이 시대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둠이다. 깨달으면, 빛이다.

10. 증거자는 빛이 되시는 주를 증거하는 자다. 신약 때, 메시아 예수님은 빛이었고, 세례요한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다.
11. 이 시대도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땅에 오셨지만, 어둠은 빛을 거부했다.
12. 유대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살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외면하고 산다. 고로 구시대에 갇혀 산다.
13. 항상 하나님이 보낸 주를 믿고, 하나님이 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그와 일체 되어 살아야, 새 시대의 구원을 받고 살게 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구시대의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자들이다.
14. 하나님은 시대 보낸 주를 쓰고 행하신다. 고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와 일체 되어 행해야 된다.
15. 주를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이 주를 통해 주시는 깊은 말씀을 깨닫는다.